

# 설 명절 가정예배

묵상기도

2026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59장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뒷면참조

담당자

성경봉독

마가복음 4장 35-41절 (신약 59쪽)

다 같이

35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던라  
38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하니 29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그들  
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말씀나눔

말씀 속으로 (뒷면참조)

다 같이

찬 송

찬송 438장

다 같이

1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합심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가정되게 하소서 (기도제목-뒷면참조)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 제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 [대표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의 씨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 이끌림바되는 우리 가정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 속으로]

Q.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안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랍니다.

### 1. 광풍 속의 제자들 (35-38절)

광풍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라고 소리칩니다.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합니까?

### 2.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39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풍랑 같은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3.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40-41절)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왜 저를 돌보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보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 [함께 기도합니다.]

1. 제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2. 광풍 같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